| 현불 논단 |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불인요원 · 동파, 법거량 '유명'
동파 "좌선모습 어떠냐" 묻자
선사는 "부처님 같다"고 답해
같은 질문에 동파 "똥 덩어리"

거량 들은 동파 여동생 '일갈'
"부처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
불교를 '지능적 사기꾼' 인식해
탐욕의 눈으로 세상 보고 있으니
정 의원 자신이 '김선달' 아닌가

송나라 때, 소동파(1037~1101)는 '동파거사'라 불린다. 그는 당송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뛰어난 문인이자, 정치가이다. 동파는 22세에 진사 급제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되었는데, 정치계에 휘말려 지방관으로 좌천되는 일이 많았다. 그가 10여 년간 지방에서 보내면서 곳곳마다 선사들과의 인연으로 참선이 깊었다. 동파는 임제종 황룡파 동림상총(1025~1091)의 법맥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한다.

운문종 오조 사계(五祖師戒, 운문문언의 손자뻘 제자)의 후신(後身)이라고 하는데(〈춘저기문〉) 진위 여부를 떠나 소동파가 그만큼 선과 밀접했음을 엿볼 수 있다.

동파는 불인요원(1032~1098) 선사와도 절친한 도반이었다. 동파가 황주(黃州)로 옮겨가 살면서 여산 귀종사(歸宗寺)에 머물고 있던 불인 선사를 만났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좌선을 하는데, 그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좌선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거사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소동파는 스님의 말에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에는 스님이 동파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가 보기에 내 자세는 어떠한가?"

"스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는 마치 한 무더기 소의 똥 덩어리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동파에게 합장했다. 동파는 집으로 돌아와 여동생에게 낮에 선사와 대화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어깨까지 으쓱거렸다. 한술 더 떠서 그는 자기 자랑까지 늘어지게 했다. 여동생이 다 듣고 나서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오라버니는 선사에게 비참하게 패하신 겁니다. 선사는 마음속에 늘 부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오빠 같은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오빠는 늘 마음속에 탐욕스런 마음만 품고 있으니, 육근이 청정한 선사를 보더라도 똥 덩어리로 본 것이네요."

앞의 이야기는 선사와 거사의 법거량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근자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하면서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였다. '봉이 김선달'은 지능지수가 높은 천하의 악명 높은 사기꾼을 지칭한다. 1700년간 이 나라 문화 창달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에 감히 내던질 수 있는 말인가!

인간이 짓는 업(karma)은 늘 품고 있는 생각(意業)이 몸(身業)과 입(口業)으로 표출되는 법이다. 두 달이 넘도록 사과조차 없다. 정 의원이 평소 살아오면서 '봉이 김선달 심보'를 품고 있으니, 그런 단어를 불쑥 내뱉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늘 탐욕스런 심보로 살고 있으니, 출가해 수행하는 승려들도 자기와 똑같은 '봉이 김선달'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과연 민중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국회의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평가해볼 일이다. 솔직히 필자 개인 일이라면, 아예 상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승가를 욕보인 일이니,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불교계가 편치 않다. 중국은 물가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의 문화재 관람료를 입구에서 내고, 사찰마다 또 입장료를 낸다. 어느 나라고 문화재 관련해서 공짜는 없다. 하여튼 언제 '봉이 김선달'보다 더 심한 발언이 나올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불교계의 단호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좋은 말만 전하세요

11월 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옷깃을 여미며 동장군과 함께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8년간의 긴 연구 끝에 물을 얼려 그 결정체(結晶體)를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물의 연구를 통하여 "모든 사물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같은 물일지라도 염소 소독을 한 수돗물은 원래 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구조를 철저히 파괴해 깨끗한 결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산사에 흐르는 자연수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나타나 마치 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물에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보여 주면 스스로 물도 자정(自淨)해 깨끗한 육각형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반대로 '망할 놈'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시간이 흐른 뒤 그 결정체가 제멋대로 흩어져 찌그러져있다고 합니다. 이는 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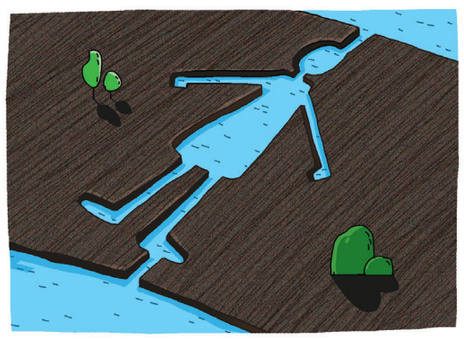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심지어 물은 음악도 들을 줄 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물에게 들려주었을 때는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그 결정체도 아름답고 잘 정돈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들려주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체로 나타납니다. 마사루 박사는 물의 결정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도 사람처럼 마음을 읽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글, 좋은 음악을 들려 줄 때 인간의 마음이 즐거워지듯이 물도 그 고마움을 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생활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는 어디서든 항상 긍정적인 말만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함부로 버리는 오염물질들은 물의 의식을 흩뜨려 결국에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들은 무생물과 미생물, 생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말과 나쁜 에너지를 주는 말을 구분한다는데, 자신의 언어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신에게도 좋은 말, 희망적인 말을 들려주어야지요.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반복된 종교편향 더 이상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기독교 음악을 홍보하는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급기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캠페인 예산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섰다. 조계종과 종교평화위원회는 물론,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계 기관과 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계의 분노를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 비단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숱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훼불로 몸살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제기로는 상처가 치유될 수 없으며 나아가 재발방지 효과조차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비와 포용' 만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지난 세월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을 단편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캐럴 캠페인'을 향한 불교계의 분노가 거세게 확산되는 현 상황, 그리고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까지 취하며 강경대응을 불사하는 모습은 단순히 문체부를 향한 목소리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인내와 희생으로 감내해 온 불교계를 무시한 데 따른, 그랬기에 여전히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를 반복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종교계를 향한 일갈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은 불교계의 자비와 포용을 빌미로 삼아 공공기관을 활용한 틈새 선교 행보를 이어가선 안 된다. 한반도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지켜온 불교계를 향해 교묘한 왜곡과 선동 역시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사찰 종부세, 앞으로가 문제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사찰에도 적용됐다고 한다. 일명 '종부세 폭탄'이 사찰에도 투하된 것이다.

실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소속 한 사찰은 지난해까지 종부세로 1억 6000여만 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4억 8000여만 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오른 수치로 최대 12배까지 오른 사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지난해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부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찰도 3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대상 종부세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는 "법인(단체)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택 부지로 임대 중인 사찰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종부세가 부과됐고, 올해부터 시행된 '6억 원 기본공제 적용 배제'가 적용됐다.

그나마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이의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정받을 수 있게 국세청과 조계종이 협의한 부분은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당장 매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부과 대상 사찰이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떠나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찰 등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세율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찰 찻집과 같은 휴게편의시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국가의 과세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종단 행정 시스템에 세무 전문 대응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변화하는 행정에 맞춘 종무행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지금! 100만 방송포교사가 되어주세요
불자라면 누구나
BTN 붓다회
1855-0108 (공백팔)
매주 (화) 오후 1시 30분, (금) 오후 1시, (일) 오전 9시
BTN 붓다회 1855-0108 | 후원안내 농협 301-0187-2702-81 (예금주:무상사(불교TV))
olleh HD 233번 | tv HD 305번 | U+TV HD 275번 | skylife 181번 | 케이블은 지역별 방송사문의